

완주삼봉 공공주택 조성

삼례·봉동읍 일원 6천여 세대 규모 10월 기공... 우미건설 대행개발방식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에 6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완주군은 삼례읍 수계리와 봉동읍 고천리 일대 91만5천여㎡에 걸쳐 조성되는 완주삼봉지구가 이달 중순 사실상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기공식과 함께 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완주삼봉 지구는 우미건설이 대행개발방식으로 시공하며, 아파트 5649가구, 단독주택 2577가구 등 총 8226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내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 11곳을 비롯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 등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완주군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보건회관 등 공공시설은 물론 육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이용시설을 건설하고, 도비 37억원을 투입해 완주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LH는 지구 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선형 공원녹지축 설정과 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로 방음벽 없는 단지 조성, 단지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구설계의 내실을 기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 3년이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와 군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특히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라 각종 화재로 인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물론, 재산을 보호하는데 첨병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환경예술대전서 실력 뽐내요

무주읍 지방공원 일원서 글짓기·그림그리기 경연 전국서 260명 참가 열전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전국 환경예술대전(글짓기, 그림)이 30일부터 31일까지 무주읍 지방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국 환경예술대전은 반딧불이와 자연을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30일 열린 글짓기 대회(초·중학생 대상)에는 전국에서 총 260명이 참가해 문문과 산문 실력을 뽐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친구들과 글짓기도 하고 반딧불 축제장도 둘러 보는 시간이 즐거웠다"며 "가족들과 함께 신비탐사에서 봤던 반딧불이를 추억하며 쓴 글이 좋은 상을 받으면 더 기쁠 것 같다"고 전했다.

/원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장수군,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장수군은 개학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개학철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군은 점검기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식품 사용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예방 3대 요령과 식품안전 관리방법,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현장 위생교육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요령을 병행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학으로 조리기구 등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하다 보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개인위생수칙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끓여 먹기, 익혀 먹기 등을 잘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무주투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캠 투어·문화교류

무주군은 30일 (사)무주군관광협의회(회장 맹갑상)와 한국중국어관광통역사협회(회장 박성란)가 업무협약을 맺고 31일까지 무주군 캠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를 알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두 기관은 관광정보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 캠 투어(무주군 주회, (사)무주군관광협의회 주관)에는 한국중국어통역사협회 회원 120명(30일 40명, 31일 80명)이 함께 할 예정으로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원에 마련된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장을 비롯해 태권도원과 무주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농촌체험마을과 머루와인동굴, 적상산 전망대 등을 투어 한다.

한국중국어통역사협회 회원들은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무주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태권



도원을 품고 있는 무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크다"며 "무주 곳곳을 잘 보고 잘 전해 무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사)무주군관광협의회와 한중지역경제협회 & 우식대공자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 사진 & 서화 문화 교류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9월 3일부터 4일까지는 SNS를 활용한 반딧불축제 홍보 콘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다.

SNS 반딧불축제 홍보 콘테스트는 반딧불축제를 비롯한 태권도원 등의

무주관광지 투어를 토대로 한 사진과 기사를 SNS를 통해 중국에 홍보한 사람을 선발해 시상하는 것으로, 1등은 50만원, 2등이 30만원, 3등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사)무주군관광협의회 맹갑상 회장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무주투어를 차별화시키고 노력했다"며 "한국중국어 통역사 초청 캠 투어와 문화교류, 홍보 콘테스트가 무주관광을 키우고 무주반딧불축제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미리 즐기세요

서울 청계광장서 장수 사과낙시 체험·나눔행사 전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팀은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홍보전을 가졌다.

이날 축제팀은 시원한 팔각에서 낚는 가을의 향기 '장수 사과낙시 체험'과 백설 공주 복장을 한 퍼포먼스 팀 나누주는 장수사과 나눔 행사,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적어 사과나무에 붙이는 '사과합시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SNS 인종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갖 수확한 장수 사과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개막전 축제의 즐거움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지역 어머니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 사과, 오미자 등)을 테마로 활용한 체험형 축제로 올해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 건강 플러스 홍보관 운영

장수군은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인 9월 2일부터 4일까지 건강 플러스 홍보관을 운영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축제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장 내에 건강 플러스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혈압·혈당측정 측정 및 상담, 금연상담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금연사업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전북지역안센터, 마을사랑병원과 연계해 국가암검진, 국가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 둘째 날인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게임과 건강상식 OX퀴즈 맞추기 게임을 진행,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여성농업인연합회 한마음대회 성황

제5회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회장 김영옥) 한마음대회가 30일 진안진통문화전수관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박명석 군의장, 의원, 감현철 도의원, 유관기 단체장, 회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농업은 희망 농촌은 미래! 한여농과 함께"란 주제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싶다는

진안건설을 위해 사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농업혁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수회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군 연합회원들이 화장을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모아 진안사람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회합한마당 시간에는 체육행사 및 다채로운 게임과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펼쳐져 한여농 진안군연합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영옥 회장은 "진안군 모든 여성농업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농촌지도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새로운 농업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자"며 한여농 회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항로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한여름밤 빅밴드 콘서트' 공연 개최

진안군은 8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난 29일 진안 문화의집 마야홀에서 뽕시도 뜨거웠던 지난여름을 보내고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는 '한여름밤 빅밴드 콘서트' 공연을 개최했다.

빅밴드 공연이라 하면 클래식 오케스트라만큼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의 혼색선과 기타, 드럼, 키보드 등의 리듬색선이 한데 어우러진 약 15인조의 밴드공연으로 진안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여져 주민들의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번엔 진안을 찾은 전북합동조합 빅밴드 공연단은 70~80년대의 흘러간 가요나 옛날 영화 OST 연주를 통해 중년층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



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중간중간 초대가수들의 애절한 트로트공연과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가 더해져 공연장은 한층 풍성해졌다.

진안군은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로 '문화 진안' 건설을 위해 매일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으며, 9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자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로 행복충전

내달부터 지원사업 진행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유희순 센터장)에서는 2016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진행한다.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자 선정기준으로는 그동안 모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시부모를 봉양하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으로 각 읍면을 통해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 29가정 중 총 10가정을 선정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이번에 선정된 10가정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일정에 맞춰 출국한다.

고향나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를 김 모(44세)씨는 "자녀를 6명 키우느라 어려운 형편에 자녀들과 외갓집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선정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을 감사를 표했다.

박성일 군수는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고향나들이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고향방문을 축하하고 군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고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과 한국어 방문교육, 모국방문사업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경찰, 현장순회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30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112총력대응팀인 지역경찰 및 상황실 지령요원, 강력팀, 교통의 근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8월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동료간사로부터 듣는 음주단속과 112초동조치 요령으로 전북경찰청과 노각읍 경위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경사들이 현장출동시 접했던 112신고 사건과 음주단속 시 경찰관들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받은 신입순경들은 "외부 감사를 통해서 듣는 교육이 아닌 선배님들의 현장 경험담과 현장에서의 조치요령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